

# 전북도, 혁신도시 발전 실무협의회 개최

### 2024년도 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 수립, 지역물품 우선구매 실적·계획 공유 내년에도 유기적인 소통·협력 통해 주민지원·지역공헌사업 등 지속 추진키로

전북도는 지난 8일 전주시, 완주군, 지방자치단체개발원을 포함한 9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9차 혁신도시 상생발전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지난 1월에 이어 이튿 번째로 개최된 혁신도시 상생발전 실무협의회는

2024년도 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 수립 방향과 지역물품 우선구매 등을 논의했다. 주요안건으로 2024년도 지역발전계획 수립 지침과 관련된 6가지 분야(지역산업육성, 지역인재 채용·육성, 주민지원 및 지역공헌 사업, 유관기관

간 협력 사업, 재화 및 서비스 우선구매 사업, 기타사업)에 대한 올해 실적 작성 요령을 공유하고 내년도 추진방향을 논의했고, 추후 수정·보완 작업을 거쳐 2월말까지 지역발전계획을 완성할 것으로 보인다. 2024년도 지역발전계획 수립 지침의

변경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수립주체 변경과 기관별 성과지표 신규 설정에 관한 사항이다. 기존 이전공공기관에서 지자체 및 이전공공기관으로 확대돼 시도 정책과 지역 현안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전북도는 기관이 설정한 성과지표를 점검하고 우수기관 선정 및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공공기관 이전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도는 내년도 지역물품 우선구매와 같은 각종 평가지표가 올해보다 개선될 수 있도록 기관을 독려했다.

전주시는 2023 제야축제 참여와 혁신도시 소재 문화·체육시설을 홍보했고, 완주군은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 등 이전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전북도는 올해 썸머페스타·가을음악회 개최, 농촌마을 독서문화 확산사업, 각종 과학특강 및 가족공연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해 지역에 필요한 문화·여가 인프라 개선에 힘쓰고 있으며, 내년도 지자체·이전공공기관과의 유기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주민지원 및 지역공헌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실무협의회 위원장인 김광수 전북도 지역정책과장은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2024년도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와 이전공공기관이 긴밀하게 협조하여 혁신도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는 지난 8일 전주시, 완주군, 지방자치단체개발원을 포함한 9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9차 혁신도시 상생발전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 전북도, 지방소멸 대응 심포지엄 개최

### 전주시 팔복예술공장 등 폐·유휴공간에 대한 사례답사 지방소멸 대응 공간정책·유휴공간 활용 등 주제발표

전북도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권영걸)는 지난 7일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폐·유휴공간 재생'을 주제로 전북지역 답사와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민·관의 전문가와 지역주민 총 140여 명이 참석해 지역의 상황을 살펴보고 지방소멸에 대한 건축과 도시적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사례답사에서 전주시 팔복예술공장과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 등 성공적인 폐·유휴공간의 재생사례를 돌아보며 공간정책의 실효성을 확인했다. 심포지엄에서는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지방소멸에 대응하

는 공간정책'과 황순우 전 팔복예술공장 총괄감독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공건축과 지역활성화'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국토부와 교육부를 비롯한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패널리스트(좌장 박성신, 군산대학교 교수)가 이뤄졌다. 빈집과 폐산업시설의 현황과 도시재생사업으로 탄생한 공공공간을 살펴보고, 인구감소 문제를 고스란히 겪는 폐교를 대상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폐·유휴공간을 지역자산으로 인식, 각종 재생사업의 통합적 시행,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지역정체성을 담은 공공공간의 조성 등 정책기반이 마련될 때 지방소멸에 맞선 공간정책의 실현



전북도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지난 7일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폐·유휴공간 재생'을 주제로 전북지역 답사와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사진=전북도청 제공)

이 가능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소멸은 우리 국가와 지역사회의 큰 과제로 다가왔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폐·유휴공간의 창조적이고 유용한 자원으로서의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 전북도, 산업단지 재난안전 워크숍

### 산업단지 재난안전 예찰단 유공 표창 수여

전북도는 지난 8일 전주 왕의지 밑에서 도 및 산업단지 관할 소방서, 시·군 재난안전 관련 부서 공무원, 유관기관, 그리고 산업단지 재난안전 예찰단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전북 구현을 위한 산업단지 재난안전 워크숍을 개최했다.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산업단지 관리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산업단지 재난안전관리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재난대응역량 강화 및 선제적 재난예방에 나서기로 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산업단지 재난안

전 예찰단 유공표창, 재난안전 우수사례 발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특강 등으로 진행됐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특강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이 진행해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의식을 고취했고, 위험물 및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안전보건 개선을 위해 사고사망 감축방안과 사업장의 안전관리 노하우 및 우수사례 등을 공유했으며,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자기진작을 높이기 위해 산업단지 재난안전 예찰단 2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김재훈 기자

## 전북 특사경, 대형음식점 단속

### 500㎡ 이상 뷔페 등 대형음식점 50개소 대상... 이달 29일까지 음식물 재사용 기준 준수, 영업자 및 종사자 건강진단 등 점검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연말을 맞아 송년회 장소로 자주 이용되는 뷔페 및 호텔·컨벤션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대형음식점에 대한 위생단속을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다가오는 성탄절과 연말을 맞아 각종 모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위생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단속대상은 500㎡이상 호텔 및 컨벤션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대형음식점 50여 개소이다.

을 다시 사용·조리 또는 보관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운동목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가족, 직장 단위 모임이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며 "각종 연회 행사가 진행되는 대형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위생단속으로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도민들이 건강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점 단속내용은 △조리장 청결상태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영업자 및 종사자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여부 등과 더불어 음식물 재사용 기준에 대한 준수 여부를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음식점에서 손님에게 제공한 음식물

한편, 식품위생 등 민생 9대 분야(식품,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산림)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과 신고전화(280-1399) 및 안전신문고 앱(www.safetyreport.go.kr)으로 신고·제보해주시길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

## 전북도, 12~17세 여성 HPV 무료 접종 홍보

전북도가 사람유두종바이러스(이하 HPV) 감염증 예방을 위해, 12~17세 여성청소년은 겨울방학 동안 예방접종을 완료해줄 것을 당부했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이하 HPV 예방접종)은 HPV 감염으로 유발되는 자궁경부암 등의 주요 질환에서 90% 이상의 예방효과가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8개국 중 36개국과 전 세계 122개국에서 예방접종하는 안전한 백신이다. 12~17세(2005~2011년생) 여성 청소년과 18~26세(1996~2004년생) 저소득층 여성은 HPV 예방접종이 무료이며, 이번 연도 마지막 대상(2005년생, 1996년생 저소득층)은 올해 12월까지 접종이 가능하다. /김재훈 기자

**1~2월(방학특강) 과정**

스피치·웃음코칭·긴장해소

○ 현대인의 필수과목에 참여하여 보람과 즐거움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① 매주 1회 야간수업      ② 도민 누구나 가능  
③ 특강 등록금 15만원(2개월분)      ④ 전문강사지도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  
원광대학교 평생교육원**

상담전화 : 231-6669, 010-7304-5665

**장애인 복지 증진대회 및 송년문화공연**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 전라북도장애인문화예술봉사단에서 합동으로 장애인복지, 인권, 문화예술참여확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제24회 행사를 엽니다. 많은 성원과 참여 바랍니다.

① 일시 : 2023년 12월 22일(금) 오후 2시  
② 장소 : 전주교육대학교 황학당  
③ 주요행사 : 개회식, 물품전달식, 송년문화공연, 행운권추첨 등

문의 : 286-6678, 팩스 : 287-6676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